

김도훈 교수 논문  
‘긍정심리학’ 및 ‘긍정기독교인간론’  
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응답

무라세 아마데오 (村瀬天出夫)

백정환 (白正煥) 역

## 1. 말머리에

2018년도 ‘일한신학신포지움’에 초대해주신 장로회신학대학교 및 성학원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김도훈 교수님의 귀중한 강연의 논찬자로서 설 기회가 주어진 것에도 감사 드립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신학자는 아닙니다. 연구자로서 서양과학사란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과 종교’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신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김교수님의 강연에 ‘응답’ 함에 있어서 ‘긍정심리학’이라 불리우는 신조류에 바라는 점, 또한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에 있어 ‘과학’이란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 2. ‘긍정적인 기독교인간론’

우선 김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인 ‘긍정심리학’과 기독교 신학 간에는 ‘상통’하는 주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하는 서론 (I)에서는 인간론에 관한 신학과 동 심리학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교류가 ‘긍정신학운동’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래 기독교신학의 인간론을 재고할 필요성 즉 ‘인간의 삶과 본성’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다음으로 ‘긍정심리학’이 인기를 모은 경위와 그 중심개념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이어집니다. (II) 먼저 20세기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동 심리학의 특

징으로써 ‘임상모델’에서 ‘건강모델’로의 전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 등의 병리구조의 이론적 파악과 그 실천적 치료라는 종래 심리학의 방법적 전환이 제기되고 ‘웰빙’, ‘인간의 풍요로운 삶’ 등 새 접근의 키워드의 소개와 더불어 근년의 ‘긍정심리학’ 연구의 발전과 함께 신학영역으로의 수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 심리학이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임이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성과 그 목표설정 에 대해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이나 긍정적인 정서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행복도 모두 인간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라고 지적하면서 동 심리학 이 목표로 하는 ‘풍요로운 삶’의 실현을 위해서는 ‘삶의 어두운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삶’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III), 인간 개인의 육체적·정신적인 건강유지에 있어서의 ‘종교’의 의의에 대해 물으면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론이 전개됩니다. 여기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그 충족을 위해 종교적 감성(‘영성’, ‘성스러운 감성’)의 중요성과 함께 작금의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의 ‘영성’에 대한 학술적 흥미의 고양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의 ‘다양한 덕목의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다음 장 (IV)에서도 좀 더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수도원적 영성’의 금욕적 자세, 근대철학의 개인주의적인 ‘행복’ 이해(‘사적 감정’으로서의 ‘행복’), 그리고 근대 기독교 인간론의 ‘행복과 환희’라는 정서적 요소의 ‘사소화(些少化)’를 반성하면서 ‘즐거움, 기쁨, 행복 등의 덕목’을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성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기독교적 인간론의 구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그 구축작업에서 ‘긍정심리학’에서 얻어지는 세 가지 발견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긍정적인 기독교 인간론’의 11가지 요점이 거론됩니다.

그런 새로운 인간론에 있어서의 예수가 ‘토대’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결론부 (V)에서는 그 지상에서의 활동과 행하심(성육신에서의 공생애 활동, 수난과 부활까지)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작업이 ‘희망과 기쁨의 상징’인 ‘부활의 신학’의 재건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3. ‘긍정심리학’

이렇게 새로운 심리학적 방법론에 대해 그 신학영역으로의 비판적, 건설적

인 도입을 제창하시는 김교수님의 강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부터는 심리학(내지는 과학)과 기독교의 ‘대화’에 관한 제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긍정심리학’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김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미국에서 발생한 비교적 새로운 심리학의 조류입니다. 과거 20년에 이 명칭이 미국 내에서 주목을 받은 배경에는 미국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 1942-)의 공적이 거론됩니다.<sup>(1)</sup> 그는 1990년대 말에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회장에 취임하면서 그 기관지 등에서 ‘행복’과 ‘즐거움’ 등, ‘긍정적인’ 정서와 그 연구의 의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2000년에는 동학회 학술지인 *American Psychologist*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의 특별호인 ‘positive psychology (긍정적인 심리학)’이라는 주제의 특집이, 그와 심리학자인 칩센트 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1934-)에 의해 조직되고 또한 같은 해에는 템플턴 재단 지원으로 동 심리학 연구에 관한 포상제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2년에 발표된 셀리그만에 의한 일반인 대상의 명저 *Authentic Happiness*는 서구 및 아시아권에서 번역되고, 일본어 번역도 2004년에 출판되기에 이릅니다.<sup>(2)</sup> 더욱이 시기에는 셀리그만과 그 동료들 중심으로 ‘긍정심리학’의 참고서인 핸드북과 논집, 대학 수업용 텍스트가 편찬되어 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셀리그만의 움직임이 자극이 되어 ‘긍정심리학’이란 영역명(領域名)은 2000년대에 미국 심리학회와 함께 일반사회에서 인지를 얻게 됐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상기의 *Authentic Happiness*의 ‘서두’에서 셀리그만은 2001년의 미국 동시다발테러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테러 후의 사회에서 ‘긍정심리학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뜻을 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동 심리학이 학술적, 사회적으로 보급되고 수용되어 가는 배경으로서 흥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긍정심리학’이란 명칭은 심리학 관계 문헌과 함께 일반서점의 서적에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통계 데이터는 없지만 특히 과거 10년간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CiNii)에는 2010년 이후 이 명칭을 키워드로 하는 논문이 매년 20편 전후로 등록되고 또한 동시기에 편찬된 최신 심리학 전문 사전류에서도 이 신조어 항목이 생겨났습니다.<sup>(3)</sup> 2006년에는 전문 논집인 ‘긍정심리학’이 간행되어 심리학의 새 조류, 또는 학술적 운동(positive psychology movement)으로서 ‘긍정심리학’이 소개되었습니다.<sup>(4)</sup>

또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일반 독자 대상의 입문서나 자기계발서도 일반서점에 진열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일반 대상의 서적 타이틀에는 어떤 종류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반 책의 부제에서 ‘지속적 행복’ ‘성공’ ‘장수’ ‘나다움 발견하기’ 란 표현이나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행복의 과학’ ‘좌절하지 않는 마음 만드는 법’ 이란 관용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실리적·공리적인 표현은 무엇보다 출판시장의 출판사에 의한 (특정 사회집단과 연령층을 공략하는) 판매전략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일반 사회의 수요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긍정심리학’ 이 학문적으로 주목을 끌며 또한 일반 사회에서도 흥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은 기독교 신학이 동 심리학과의 대화를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경향이지만 왜 현재 이 정도로 ‘긍정’ 이 강조되며<sup>(5)</sup> 또 거기에 ‘과학적’ 이란 표현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신학의 최종적인 대화자인 일반사회에 대해, 즉 신앙인을 포함한 일반시민과 처해진 사회적 상황에 대해 큰 시사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sup>(6)</sup>

바꿔 말하자면 ‘긍정심리학’ 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 중 하나는 진정으로 ‘긍정심리학’ 이 요구되는 사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지만 왜 이런 ‘인간의 강함’ 에 주목하는 ‘과학적 심리학’ 이 일반인들에게 매력적이며 설득력을 가질까요? 그 학문적인 방법론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수용되는 사회적 문맥도 또한 신학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세대나 사회층, 개인 및 집단이 의지하고 서있는 곳의 문화나 전통, 정체성이란 점에서 다양한 차이가 인정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공통하는 일반적인 특징도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 이란 가치에 관한 이해와 그 내실, 또한 그것에 관계된 자의식과 그 표현방법 (예로 자신이 ‘행복하다’ 고 솔직하게 발언하는 사회도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란 점에서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행복’ 추구를 둘러싼 다양성과 일반성을 파악하는 일은 현대 기독교의 ‘영성’ 과 그 의의를 되묻는 관점에서 흥미 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4.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심리학’이란 키워드가 나왔기에 다음에서는 ‘과학’이란 점에서 의견을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그 때문에 이야기 범위가 좀 빗나가겠지만 우선 최근의 의료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현대 의료의 특징 중 하나로 치료상의 유효성에 관해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evidence-based medicine: EBM’이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근거에 기초한 의학’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특히 강조된 개념입니다.

대강 말해서 의료행위와 그 치료효과란 것은 의료자의 ‘경험’(experience)에 의존하는 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적절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는 해당 증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치료 실적, 즉 그 의사가 보유한 풍부한 경험을 중시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또한 의사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갖춘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EBM은 특정 의료자 개인이 가진 경험뿐만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중시합니다. 그 경우의 ‘근거’란 선행하는 역학적(疫學的) 데이터, 즉 특정 치료법의 유효성에 관한 임상적, 통계적인 집계 및 평가를 받은 지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지 등으로 공표되어 심사를 받은 논문과 그 데이터베이스란 형태로 집적됩니다) 이들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어떤 치료법이 면전의 환자에게 유효할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치료행위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그 유효성을 높이면서 치료법의 더 큰 개선에도 공헌한다고 봅니다.<sup>(7)</sup>

이런 절차는 동시에 의사와 환자간의 인포드 컨센트를 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즉 과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치료방침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무(accountability)를 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가 환자 입장이라면 의사의 ‘경험’은 물론이고 치료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효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보다 긍정적인 치료에 전념할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우리에게서 실덕력을 가지는 것과 함께 안도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대 의학과 유사적 관계로 신학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근

거에 기초한 의학’이란 트렌드가 시사하는 한 가지는 의학에서도 ‘과학적인 것’ 바뀌 말하자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신학도 또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시대의 이른바 ‘evidence-based theology’란 것이 구축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 5. ‘과학적’이란

우선 ‘과학적’이란 말에 담긴 사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특징은 역사적, 제도적,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다양하며 변화 무쌍합니다. 방법론적인 면에 국한해서 본다면 자연과학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로 ‘물질환원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sup>(8)</sup>

즉 세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자연현상은 그 기본적인 물질 단위의 행동에 분해(환원)하여 이해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의 물질 단위란 물리학에서 말하자면 분자나 원자, 양자나 중성자란 소립자 등의 원소적인 단위에 해당됩니다. 이들 거동을 수리적으로(즉 질량, 에너지량, 속도, 거리, 정수등의 수량 단위를 사용해서) 기술하는 것이 물리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물질의 행동에 환원하기 위한 방법은, 기타 ‘과학적’인 절차방법론(관찰과 실험, 수량화와 정식화, 가설연역법과 검증주의 등)을 가능하게 하며, 그것에 의해 과학의 특질이 되는 ‘객관성’ ‘보편성’ ‘실증성’이 담보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물질요소로의 환원이라는 접근은 자연인식과 그 기술에서 ‘물질’ 이외의 것, 즉, ‘의식’, ‘의도’, ‘정신’이란 ‘마음’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진화론에서는 기린의 목이 긴 것은 큰 나무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그러려고 마음먹은)가 아니라 유전적 변이, 또는 목이 긴 기린이 발생하여 그 유전자를 가진 기린이(다른 목이 짧은 기린보다)주어진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생존경쟁에서 이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그 생물군의 ‘의지’의 결과가 아닌, 또한 신이 창조한 ‘의도’가 아닌, 단지 우연이 거듭되어 그런 유전자와 형질이 남긴 결과일 뿐이라합니다. 과학적인 자연관에서는 자연 내부에 ‘의지’, ‘목적’, ‘감정’ 등을 가정하는 일은 엄격히 거부됩니다.

호우나 우뢰가 발생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의 노여움(감정)이나 경고

(목적) 가 아니며, 기우체를 지내는 사람들의 심적 바람의 결과도 아닌, 그것은 갖가지 물리적 기상 조건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 에서 본다면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보존하는 것은 물체가 그렇게 ‘보존하자’ 고 의도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물체라 하는 것의 성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즉 과학적인 설명에서 ‘마음’ 에 관한 요소는 배제됩니다. 이렇듯 물질환원주의는 현상의 물질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심적 요소에 의한 설명을 거부시킵니다.

이런 ‘마음’ 을 배제하는 물질환원주의는 근대 이후의 심리학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른바 ‘행동주의 (behaviorism)’ 라고 불리는 20세기초에 태어난 ‘과학화’ 된 심리학입니다. 그것은 즉 심리학의 기술 대상에서 의식 등의 ‘마음’ 의 움직임 (관찰 불가능한 주관적인 현상) 을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오직 ‘행동’ (계측가능하며 객관적인 현상) 을 관찰 대상으로 하여, 그 심리 모델로서 자극과 반응과의 법칙적 관계 (‘자극반응설’) 을 세우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즉, 인간은 어떤 자극 (입력) 에 대해 어떤 (고통이나 쾌락이란 의식상태에 동반하는) 신체적인 반응 (출력) 을 나타낼지 실험을 반복하여 통계적 근거로 입력과 출력의 법칙성을 정식화하는 것입니다. ‘마음’ (심리) 을 ‘물질’ (신체) 에 관한 객관적·실증적인 데이터로 환원하려고 하는 이 접근은 지금 ‘과학적’ 입니다. 실제 행동주의를 제창한 와트슨 (John B. Watson, 1878-1958) 은 이 환원주의적 방법으로 심리학을 과학화하려 했습니다.

현대 인공지능연구에도 이런 행동주의적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란 질문은 ‘의식이란 것이 입력과 출력이란 방정식의 집합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 란 질문과 동가 (等値)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차례대로 이해돼 온 것은 이런 모델에서 있어서는 자극이란 입구와 반응이란 출구를 관측하는 것에 머물러 그 입구와 출구를 가진 방 자체, 즉 ‘마음’ 내지는 ‘의식 그 자체’ 는 여전히 몸에서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 라고 했습니다. (중국어 방 [Chinese room] 사고실험<sup>9)</sup>) 과학적인 방법은 ‘마음’ 을 취급하는 것에 취약합니다. 이에 ‘과학적인 것’ 의 원리적인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앞서 말한 ‘신학의 과학적 근거’ 란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조금 극단적인 사고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환원주의에 특징지어진 과학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 신학적인 주제가 된 ‘영성’ 에 대해 어떠한 ‘근거’ 를 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자극, 상황을 줌에 따라 ‘행복’ (이란 개념에 정의되

는 행동, 통계상 유의미한 수치군의 변화) 이란 반응이 얻어진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입력과 출력의 방정식을 전 항의 자극군에 ‘영성’에 관한 요소를 포함하고, (동시에 반응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부차적인 요소는 적절히 배제했다고 합시다). 거기서 만약 후항의 반응이 ‘긍정적인 (‘행복’)' 것으로 인식되면 그 경우 ‘영성’과 ‘행복’ 간 (관련)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적어도 한번은) ‘입증’된다고 일단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극도로 단순화된 모델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과학적 모델에서는 양자를 잇는 경로, 즉 ‘마음’ 그 자체는 아직도 블랙박스인 채 그 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것을 구하는 방법에는 늘 무언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6. 전망

어찌됐든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심리학적 지식이, 신학의 어느 영역에서 필요할 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직신학으로부터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에 이르는 광대한 학술 영역과 그것들에 관련한 문제영역의 자리매김입니다.

특히 심리학과 신학의 교류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이후 특히 실천신학에 있어서 축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sup>(10)</sup> 예를 들어 종교교육 (종교적 판단 및 신앙획득에 있어서의 발달심리학의 견지), 설교학 (종교적 커뮤니케이션 성립 조건), 그리고 목회 (심리분석, 회화요법, 심리학적 치료 모델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조언과 지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장면에서 심리학적 지식의 수용과 그 연장선상에 ‘긍정심리학’과의 교류를 위한 자리매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근거에 기초한 의학 (EBM)’과의 유추에서 기독교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의한 책무의 충족이나 신학적 주장의 기초도 예를 들어 전도나 목회, 또는 호교적 (護教的)인 국면에 있어서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의 심리학과 대화의 중요성, 또 ‘종교와 과학의 대화’의 일반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기술한 물질환원주의로 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의 한계성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인 지식과 방법을 참조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론의 한계도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과학적



방법론이 가진 한계성의 이면에 신학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학적, 또는 심리학적 방법에 의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여 찾아내는 것에 신학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경험’ 적인 것을 지향하며, 종교는 ‘초월적’ 인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는 명확히 대조적인 관계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종교와 과학의 ‘대화’ 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양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긍정심리학’ 이란 거울이 비추는 것, 그것은 동 심리학의 방법론적, 원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신학의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님이 구상하신 ‘긍정기독교인간론’ 에 대해 일반 신도의 소박한 의문을 남기며 이 ‘응답’ 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종말론 및 구제론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말’ 이란 말은 파멸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독교 (내지는 유대교) 의 종말사상이라는 것은 세계의 종말에 대해 현실적인 비관주의라기보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 내지는 동경이란 일종의 초월적인 낙관주의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런 기대와 동경이 야말로 구제론이 성립하는 근간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세상의 ‘긍정적인 삶의 충족’ 과, 종말론 및 구제론과의 신학적 연관이 어떤 것인지, 김도훈 교수님의 새로운 인간론에 대한 깊이 있는 고견을 기대하면서 이 ‘응답’ 을 마치고자 합니다.

## 주

- (1) 시마이 사토시 (島井哲志) 편, 『긍정심리학——21세기심리학의 가능성』, 나카니시야출판, 2006년, 3-21쪽.
- (2) Martin E. P.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Free Press, 2002). (일역: 마틴·셀리그만, 『세계에서 유일한 행복——긍정심리학이 가르쳐주는 충만한 인생』, 코바야시 유코 (小林裕子) 역, 에스펙트, 2004년).
- (3) 예를 들어 Gary R. VandenBos (ed.),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American

-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7). (일역에서는 G. R. 반덴보스 감수, 『APA 심리학대사전』, 시게마스 카즈오 (繁榊算男)·요츠모토 유코 (四本裕子) 감수역, 바이푸칸 (培風館), 2013년, 829쪽), 후지나가 타모츠 (藤永保) 감수, 『최신심리학사전』, 헤이본사 (平凡社), 2013년, 696-697쪽 (집필 담당: 오이시 시게히로 (大石繁宏), 시모야마 하루히코 (下山晴彦) 편집대표, 『성신심리학사전』 신판, 성신서방, 2014년, 657-658쪽 (집필 담당: 오츠카 야스마사 (大塚泰正).)
- (4) 시마이 (島井), 『긍정심리학』.
  - (5) ‘긍정’이란 말의 사용 및 의미 이해에 대해서는 이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긍정’이란 말의 일반적 사용에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그 사실에 관한 가치판단도 포함되어 사용되며, 또한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용어가 극히 소박하게 사용될 경우, ‘긍정’과 ‘부정’이란 두 개의 대립, 또는 그에 대응하는 선악의 이원론적인 이해를, 언어 의외로 유인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둘째, 토톨로지 (향진명제)의 가능성이다. 언어의 의미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불분명한 채로 사용될 경우, 예를 들어 ‘긍정’에 의미상의 불명확함이 남을 경우, 자의적인 운용 및 의미내용 (과 가치판단)의 확대. 변경, 이탈의 위험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 (6) 예를 들어 시마이 (島井) 『긍정심리학』 (10-11쪽)은 ‘선진제국’에 ‘보수화 경향 또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의 회귀’란 현상이 나타나며, ‘긍정심리학운동’의 발전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이 대중화한 시대의 ‘물질주의로의 반동’ ‘몰가치적인 과도한 상대주의에 후퇴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그 사회적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 (7) 하시모토 신야 (橋本信也), 키노쿠니 켄조 (紀伊国献三), 이데즈기 야스오 (出月康夫) 감수, 『의료의 기본ABC—일본의사회생애교육·기본적의료과제』, 일본의사회잡지 특별호 123 (12), 일본의사회. 2000년, 320-323쪽.
  - (8) 이하 논의는 다음을 참조. 무라카미 요이치로 (村上陽一郎), 『의료와 과학』 모리 오카 야스히코 (森岡恭彦), 무라카미 요이치로 (村上陽一郎), 오로 타케시 (養老孟司) 편저, 『신의학개론 (新医学概論)』. 산업도서, 2003년, 33-41쪽.
  - (9) John. R. Searle,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3): 417-457, 1980.
  - (10) Christoph Morgenthaler, Psychologie, Religion, Theologie und Kirchen, in Gerhard Krause und Gerhard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27 (de Gruyter, 1997), 697-699.